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http://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http://english.gnpnews.org)  
일어판 [japan.gnpnews.org](http://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http://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19. 12. 8 ~ 2019. 12. 28 제216호

## 축 성탄! “기쁘다 구주 오셨네”



▶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제공: WMM

##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더러운 마구간이었고, 그를 낳으신 곳은 짐승의 먹이통이었던 말구유였다. 누가 보아도 인정할만한 왕의 모습이 아닌, 신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초라하고 불품없는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오

신 예수님.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경배했다. 존귀한 분께 드리는 가장 값진 황금, 제사장이 제단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유향,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죽은 자에게 바르는 몰약.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

자.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다! [GNPNEWS]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마태복음 2:1~2)

다음 호는 12월 29일자로 발행됩니다

##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 청소년 에이즈, 정부가 방치하며 “감염자 급증”

동성애를 통해 에이즈에 감염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적극 홍보하고 계도하지 않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최근 국회에서 열린 ‘디셈버 퍼스트 세미나’에서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충남 서산·태안)은 “정부가 에이즈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고 은폐하기 급급하며, 언론에 알리는 것도 금기시하고 있다. 교육부나 질병관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도 이 문제를 알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이한 대처로 지난 2018년에는 최근 에이즈 감염자중 10~20대가 전체에서 34.4%(415명)를 차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대 이후 신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김준명 박사(전 연세대 의대, 세브란스 감염내과 전문의)는 전국 20여 개 대학병원과 질병관리본부가 연합해 10~20대의 에이즈 감염경로를 조사한 결과, 에이즈 감염은 주로 동성간 성접촉에 의한 것으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보건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동성간의 성접촉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가장 위험한 행위임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간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를 사실상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이에 에이즈 전문가들은 “에이즈 환자가 국가유공자보다 더 각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듯하다.”며 “이는 해외에서 볼 수 없는 희귀한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동성애를 부추기는 퀴어행사와 다음세대를 위한 성교육에서도 동성애를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교육을 서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GNPNEWS]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로마서 1:27)

**기도 |** 정욕에 사로잡혀 정부기관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죄를 끌어안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걸음을 멈춰주시고, 드러난 진실 앞에 죄의 결과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91)

## 인생이 허무하십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가져다주신 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갑작스러운 사고나 치명적인 병으로 인생이 무너져 버린 지인들의 소식을 들으면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까? 그런 불행이 닥치지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경각심을 높여 혹 있을지 모르는 그 일에 대비하십니까?

이 허무감과 불안감은 당신이 외면하고 싶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참으로 5분 뒤의 일

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불안감을 떨쳐 버리고 싶어서인지 사람들은 천 년 만 년 살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절감하여도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어서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엔 별 관심과 실천이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죽을 때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애써서 쌓은 만큼 더 많이 두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죽음 앞에서도 허무하지 않을까요? 죽을 때 가져

갈 것이 있는 인생입니다. 죽음이란, 사람의 육체에서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불려가는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육체에 속한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던 믿음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던 아름다운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기를 미루는 것은 허무한 인생을 하루 더 연장하는 것입니



일러스트=김경선

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당신 인생의 모든 허무와 불안에게 영원한 안녕을 고하십시오.

[GNPNEWS]

### 알림

이 코너는 이번 호로 끝나고 다음 호부터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코너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잘 활용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복음기도총서1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주는 전도편지 100

“죽으면 모든 게 끝일까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이 정도 죄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나요?”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

가: 23,000원 (별책부록 포함)

별책부록의 전도편지 100장을 한 장씩 뜯어서 언제 어디서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www.jakinboaz.co.kr](http://www.jakinboaz.co.kr) 032-887-0235

복음과 복음과기도미디어



# “경기 전 기도, 다시 허용” 美연방순회법원 판결

TV넥스트, “트럼프 이후, 미국 기독교정신 회복되고 있다”



▶ 풋볼 경기장에서 기도하는 캠브리지 기독교학교 학생들(출처: ccslancers.com 캡처)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4년 전 풋볼 경기 전에 공개적으로 기도하던 전통을 금지시켰던 하급법원의 판결을 연방 제11회 순회항소법원에서 뒤집었다.

2015년, 플로리다 고교 체육협회(FHSAA)는 캠브리지 기독교학교와 잭슨빌 기독교학교가 올랜드 시트러스 보울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시작하기 전, 주정부의 재산인 공공확성기 시스템을 사용해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 2017년 2월, FHSAA가 낸 소송에서 플로리다 연방 지방 판사는 FHSAA의 결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캠브리지 기독교학교 변호인단은 “국가기관인 FHSAA가 도시 소유인 경기장에서 두 사립 기독교학교가 1분 동안 나라 재산인 마이크를 통해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

도하는 것을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은 비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팀 선수 중 제이콥 엔스는 “(당시에) 챔피언십 경기에 출전하게 되어 기뻐다. 내가 팀에 소속된 이후,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 용기를 얻는 우리의 전통을 저들이 망가뜨려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우리는 따로 모여 계속 기도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세대의 가치관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인 TV(Traditional Value)넥스트는 “이번 판결은 12명의 항소법원의 판사 중 수석판사가 미국 헌법을 강력히 준수하는 인물이며,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수많은 반대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지명했던 판사가 기독교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이

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뽑은 판사 4명과 클린턴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들이 뽑은 판사들과의 치열한 ‘가치관 전쟁’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TV넥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크리스천들을 억압했던 오바마 전 행정부의 반기독교 정책들을 바꾸고, 미국 헌법을 수호하며, 오늘의 미국을 만든 기독교 신앙을 존중하는 보수 성향의 판사들을 미연방법원과 연방차원의 지방법원에 임명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새로운 판사들을 선임할 때마다 거짓뉴스와 방해자들의 공격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왔다.”며 “새롭게 임명된 판사들 때문에 이번 기독교 고등학교 풋볼 경기 전 기도에 대한 4년 전의 소송을 뒤집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유연구소(First Liberty Institute)의 제러미 다이스 특별고문(소송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수정헌법 제1조는 두 팀이 기독교이며, 미식축구 경기 전에 기도하는 사립 기독교학교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GNPNEWS]

##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 시민들 환영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성적(性的) 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데 대해 국내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환영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는데 이어, 국회입법예보 사이트에서도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 등 40인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나열된 소위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16일에는 80여 개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동성애조장 국가인권위법 국민운동본부’가 ‘국가인권위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 환영하는 성명을, 20일에는 400여 개 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삭제 지지 전국네트워크’가 개정안 적극 지지와 ‘통과 촉구대회’를, 22일에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국가인권위법 ‘성적 지향’ 삭제 개정안 발의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는 성명 발표를, 최근에는 탈동성애인권센터(대표 이요나 목사)도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국회입법예보 사이트에서 28일 오후 9600여 개의 의견이 달리며 ‘관심 법률안’으로 예고돼 있다. 의견 대부분이 법률안에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이 삭제돼야 한다.”며 찬성의사를 표명했다. [GNPNEWS]

## 성경적 동화책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출간

동성애, 제3의 성 등 성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는 이 시대에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이하 하나님께서)가 출간됐다.

한국의 대표적인 성경적 성가치관 강사이자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 대표인 김지연 약사가 직접 감수한 이 책은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마티 마쉴스키 목사의 성

경적 성가치관 저서를 번역한 것이다.

동화책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남녀 성별(性別)은 우리를 지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마티 마쉴스키 목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성경적 진리를 제공한다.

한가협은 이 책이 성경적 가치관을 지지하고, 리비도(성본능·성충동의 뜻) 이상화를 향해 달려가는 그릇된 트렌드를 바로잡는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형성할 것이라며, 한가협 성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강사들이 활용할 선정도서로 지정했다. 흠앤에듀 간, 값 1만 2천 원. [GNPNEWS]

## 알제리에서 기독교 개종 가족 잇따라 세 명 살해돼

알제리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한 가족 가운데 세 명이 잇따라 무슬림들에게 테러로 살해됐다.

본지 통신원에 따르면, 알제리 제2의 도시 오란에 거주하는 데르라지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A형제의 매형이 지난 달 21일 A형제 가족을 도우려다 도로에서 무슬림들에게 공격을 받고 살해됐다. 차량에는 A형제의 작은 아버지와 살해된 매형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무슬림들의 테러로 A형제의 매형은 현장에서 즉사하고 작은 아버지는 가까스로 그 자리에서 탈출해 목숨을 건졌으나 다리를 심하게 부상당했다. 그러나 이들이 자유롭게 부상을 치료받을 병원조차 마땅치 않은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무슬림들에게 납치됐던 A형제의 여동생은 납치범들이 요구한 A형제가 취득한 F국 국적포기신청서를 작성해 전달하면서 풀려났다. 납치범들은 데르라지 집안에 대해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이슬람으로 재개종하고 알제리를 떠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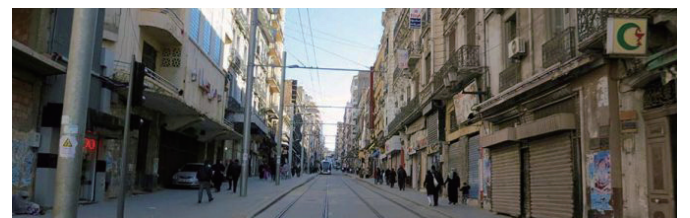
또 A형제는 경찰에 의해 거주 이동을 제한받고 있으며, 어떤

경제활동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한 데 이어 가족 모두 사실상 타액연금 상태에 놓여 있다.

본지 통신원은 A형제가 경찰 관계자로부터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서서히 병들어 죽거나 굶어 죽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무슬림들이 한 가족에 대해 집단적인 테러와 살해를 하고 있는데 경찰은 오히려 이러한 테러 집단의 활동을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A형제는 “나도 언제 죽 임 당할지 모르겠다. 살아있을 때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나의 사랑하는 구세주 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제리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알제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영접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앞으로 인터넷과 위성방송 등으로 내보내고 싶다.”고도 했다.

그는 또 “이번 동생들의 사건을 계기로 이 세상의 물질이나 더 나은 나라의 국적 같은 것은 분명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라고 덧붙였다. [GNPNEWS]



▶ 오란 시내 전경(출처: mosaic north africa 캡처)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9년 12월 9일 ~ 12월 28일

**12월 9일 ~ 12월 14일** ▶서울 광진 / 빛과소금교회(권\*\*)010-7754-1726, ▶경기 부천 / 산돌교회(박\*\*)010-9527-2468, ▶경기 의왕 / 대흥교회(천\*\*)010-2794-9906, ▶광주 북구 / 광주예수마을교회(박\*\*)010-2330-5849, **12.9(16시)~13(10시)** ▶충남 서산 / 헤브론원형학교(안\*\*)010-9649-0052, **12.11(09-17시)** ▶경남 진주 / 예수로교회(윤\*\*)010-7925-6004, **12.13(0~24시)** ▶경남 김해 / 진영소망교회(김\*\*)010-4567-8775, **12.13(10-14시)** ▶전남 순천 / 우리동네작은교회(강\*\*)010-7129-7224, 그외 15교회 진행중.

**12월 16일 ~ 12월 21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전남 담양 / 물댄동산교회(조\*\*)010-6429-7027, **12.16~17(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김\*\*)010-7423-4953, **12.17~18(06-18시)** ▶전북 남원 / 은혜의샘교회(김\*\*)010-3290-4316, **12.18(06시)~19(06시)** ▶서울 서초 / 평안교회(송\*\*)010-5791-9197, **12.20(20-22시)** ▶경북 울릉 / 동산감리교회(조\*\*)010-2639-8795, **12.20-21(10-22시)** ▶전북 전주 / 주소망교회(최\*\*)010-4661-4039, 그외 15교회 진행중.

**12월 23일 ~ 12월 28일** **12.23-27(14-17시)** ▶경기 안산 / 안산은총교회(전\*\*)010-5337-2771, **12.26-28(08-13시)** ▶강원 춘천 / 샘물교회(이\*\*)010-8856-7726, **12.26-28(10-23시)** ▶경기 고양 / 대화사랑의교회(김\*\*)010-4058-0675, **12.27(09시)~28(12시)** ▶대구 달성 / 하늘교회(문\*\*)010-5373-5183, 그외 12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기획 | 시리아 난민사태 (2)

# “세 살배기의 주검, 세상의 양심을 깨우다”

##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

오늘날 본격적인 난민문제의 시발점으로 여겨지는 시리아 난민사태에 관한 현장 저널리스트의 기고문을 게재한다. 본지 객원 김시몬 기자는 시리아, 오스트리아 빈에서 거주하며 유럽으로 온 아랍 난민을 도왔으며, 현재 요르단에서 난민을 섬기며 그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리고 있다. <편집자>

### 새로운 시발점으로

“아이의 시체를 보는 순간, 내 몸이 얼어버리는 것 같았다. 충격적이었고 슬펐다... 그러나 멍하니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의 말 없는 비명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이 비극을 사진으로 세상에 알리는 것만이 내가 아이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터키 남부 휴양지 보드룸에 주재하던 닐루페르 데미르(Nilufer Demir)는 터키 언론사 도안 통신(DHA) 소속 여성 사진기자다. 그녀는 2015년 9월 2일 오전 6시경, 파키스탄 난민들이 그리스 섬으로 가는 장면을 취재하기 위해 해변을 찾았다가 쿠르디 가족의 비극을 목격한다.

시리아의 쿠르드족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는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가려던 부모를 따라 고무보트로 에게해를 출발했다. 불행히도 보트는 출발한 지 5분 만에 뒤집혔고, 쿠르디는 엄마와 다섯 살 형과 함께 숨진 채 터키 보드룸 해변에 발견되었다.

데미르 기자가 찍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에 세상은 경악했고, 난민을 향해 차갑기만 하던 어른들의 양심도 뒤흔들렸다. 난민의 유입을 거부하던 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 난민과 더블린조약

난민은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신분 혹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감 때문에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이다. 1951년 제정된 위의 국제 협약에 근거해 전쟁 난민, 정치 난민, 종교 난민, 기후 난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전 세계의 모든 난민은 유엔난민기구(UNHCR) 관할이며, UNHCR은 각국 정부나 국제연합의 요청에 따라 난민을 보호하고 구제하며, 재송환이나 재정착을 돕는다.

유럽연합(EU)은 난민이 여러 국가에 망명을 신청한 후 그중 가장

선호하는 나라를 선택하는 이른바 ‘망명지 쇼핑’ 행위를 막기 위해, 1990년에 ‘더블린 조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난민자로부터 망명 신청을 요청받은 국가도 난민 보호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청을 받아들이고 난민 자격심사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리스와 이탈리아처럼 난민 발생 가능성이 큰 아프리카와 중동에 인접한 유럽 경제의 국가들은 난민 수용 부담을 제기해왔다. 2011년 발발한 시리아 내전은 이 같은 더블린 조약의 한계점을 증폭시키고 난민 수용을 둘러싼 유럽연합 국가 간의 갈등을 일으켰다. 열악한 자국 경제 상황에 테러 위협까지 겹치면서,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 유럽 국가들은 몰려오는 난민을 자국 국경에서 차단하고, 지문 등록을 고의로 피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유럽으로 가려는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 난민들의 목숨을 건 밀입국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다. 이들은 유럽연합 영토의 시작이자 그리스 최남단 섬인 레스보스 혹은 고스로 가기 위해, 여객선 비용보다 50배에서 100배까지 비싼 비용을 치르며 브로커들의 불법 중개를 통해 터키 서부 해안에서 고무보트로 에게해를 건넜다.

쿠르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2015년 8월 24일 독일 정부는, 모든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어느 나라를 거쳐 유럽에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독일에 머물 수 있다고 선언했다. 유럽의 어느 국가에 첫발을 들여놓았는지를 묻는 서류 작성도 시리아 출신 망명 신청자에게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더블린 조약을 무효화시키는 전격적인 조치였다.

이 선언 이후 시리아 출신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출신 난민들도 대거 몰려와, 유럽연합 내 2015년도의 난민신청자는 무려 132만 명에 달했다. 이는 2014년도 63만 명의 두 배에 이른다. 그중 독일에서의 난민신청자는 89만 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것도 2015년 독일에 입국한 난민 등록자 가운데 심사를 시작했던 숫자만을 집계한 것이다.

2016년에도 유럽연합 내 난민신청자는 126만 명에 달했으나, 유럽연합과 터키 정부 사이에 맺은 협약에 따라 2017년에는 71만 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유럽에 도착한 난민들은 입국 국가에서 난민 등록을 한 후, 난민 지위 취득을 위한 당국의 심사를 거친다. 조국을 떠난 이유가 난민 인



▶ 온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출처: DHA 캡처)

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 여부 등을 조사받은 후 망명자로서의 난민 지위를 얻게 되면, 매달 생활비와 함께 다양한 복지 혜택이 주어진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4인 가정당 매월 1800유로(약 233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고, 그 돈으로 집을 얻어 독립된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반면에 난민 지위가 거절되면, 과거에는 몇 차례 항소 기회가 주어졌으나 현재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경우 포화 상태의 난민신청자로 인해 본국으로의 강제 송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동화와 단절, 옹화와 고립

현재 유럽으로 간 시리아 난민들은 대부분 난민 인정을 받았다. 2015년을 전후로 부모를 따라 청소년 시기에 유럽으로 간 난민 자녀들은, 이제는 대학 진학을 하거나 고교 졸업 후 직장을 잡으며 유럽 사회에 적응해 가는 추세다. 그들보다 더 어린 자녀들의 적응력은 더욱 빨라서 현지 어린이들과 다들 바 없는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유럽에 정착한 시리아 난민들의 적응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자녀보다는 부모세대에 집중되어 있다. 30대 후반 혹은 40대 이상의 부모들에게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어인 ‘독일어’라는 언어적 장벽을 넘기가 무엇보다 쉽지 않다.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그 종교를 믿는 무슬림이라는 중동 출신 아랍 난민의 특징은, 기독교적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유럽 현지인들과의 융화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학교생활과 또래 아이들과의 활발한 교제 속에 유럽 사회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자녀와, 그런 그들을 우려하는 부모 간의 세대적 갈등은 난민 가정 안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아랍인으로서 이슬람 신앙적 정서와 문화를 고수하려는 부모의 눈에는, 선진 유럽 사회에 동화됨을 오히려 인생의 기회라 여기며 적극적으로 유

럽화를 추구하는 자녀의 짧은 옷차림에서부터 문란해 보이는 이성교제, 식어가는 듯한 신앙심에 이르기까지 많은 게 못마땅하고 갈등과 반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환경에서 난민 부모세대는 낮은 사회 환경에서의 생존을 위해 독립적 자아로서 자기 존재감을 강화하려 한다. 이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

21세기 이전부터 유럽에 진출하여 이제는 사회 구성원의 분명한 한 주체로 있는 터키 이민자들은, 자신의 종교 활동을 위해 동네 곳곳에 ‘간이 모스크’-독립 건물이거나 건축된 형태로서의 이슬람 회당이 아니라, 일반 상가나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기도처-를 두고 있다. 터키인들의 이런 기도처를 이용해 아랍 난민들은 무슬림으로서의 종교적 향수를 달래고 신앙을 강화해 간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교회들이 난민을 위해 독일어 코스를 개설하여 봉사하듯, 아랍 난민 자녀들을 위하여 아랍어 교육을 개설하는 간이 모스크도 노는 추세이다.

### 기회와 위기

구원과 영성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중동의 아랍 국가들은, 돌짜발 같은 땅이다. 반면에 유럽에서는 종교적 활동이 자유로운지라 무슬림과의 신앙적 대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곳이다. 그렇기에 자유와 평화를 찾아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 온 가난한 마음의 아랍 난민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눠줄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시리아 난민들의 유럽 대거 진출이 정점에 달했던 2015년 전후의 유럽에는 아랍 사역자들이 드물었다. 난민과 유럽 현지인 간에 소통을 이어줄 때 개언어가 부재했다. 그런 연유로, 과거 시리아에서 사역했던 필자도 오스트리아로 이주하여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온 난민들을 섬겼다.

그러나 이제 시리아 난민들 다수는 현지 언어 구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인들과 교회 그리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에게 난민을 위한 다양한 복음 증거의 기회가 늘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로 고민하는 유럽에 다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가진 아랍 출신 무슬림 난민이 대거 유입됐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관한 복지 혜택이 세계 최고 수준인 서북부 유럽인지라, 새로운 땅에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아랍 난민은 더욱 자녀를 마음 놓고 많이 낳을 것이라 예상된다. 유럽이 머잖아 이슬람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진출과 그들에 의한 폭력과 테러의 위협 역시 잠재되었다. 그동안 아름다운 관광지로만 보였던 유럽의 미래에 대한 기독교권의 시선이 평화롭지만은 않다.

과거 유럽 크리스천들이 중동으로 가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문 사역자가 아니면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제는 땅끝인 중동의 무슬림들이 ‘난민’의 이름으로 유럽으로 왔다. 땅끝이 이웃으로 다가왔다. 만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진 것이다.

현재 유럽 안에는 무슬림들이 집단 거주하며 이른바 ‘No Go Zone’이라 하여 국가 공권력도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있다. 이같은 계도화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포교를 활발하게 하여 그 지역 전체를 접수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다. 무슬림이 한 가정 두 가정씩 동네에 늘어나는 것이 눈에 거슬렸던 현지인들이, 하나둘 동네를 떠나는 바람에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웃의 친구로 다가가야 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나니, 자연스럽게 무슬림 동네가 된 것이다.

시리아를 비롯한 유럽 내 아랍 무슬림들의 대거 유입 사태... ‘과연 기회일까? 위기일까?’를 묻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서 너도 위와 같이 하라”는 주님 말씀을 따라 먼저는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가버린 기회는 위기라는 이름으로 종종 돌아오곤 한다. <계속>

[GNPNEWS]

김시몬 본지 객원 기자 필자는 2015년 가을, 이종덕 포토저널리스트, 최서우 PD(CGN)와 함께 터키에서 출발하여 그리스-마케도니아-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오스트리아-독일로 이어지는 3000km의 난민 행렬을 따라가며 취재했다.



기획 | 창조 이야기 (25)

# 네안데르탈인, 200~300년 살았던 보통사람일뿐

## 교과서의 '유인원'은 거짓말이다 (1)

본지는 창조론 전문가인 미국 켄트 호빈드 박사의 창조론 강의를 요약, 소개한다. 호빈드 박사의 강의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흥미롭게 설명하며, 진화론이 거짓 믿음 체계임을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편집자>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말씀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면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할아버지가 원숭이었다고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 진화론은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고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점점 더 파괴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아담과 하와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결코 더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헐거인(穴居人)에 대한 진실은 무엇인가? 원숭이 같은 생물이 인간으로 바뀌는 것이 가능한가? 헐거인은 동굴에 사는 사람

을 뜻한다. 요즘도 동굴에 사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그 사람들을 '원숭이 반, 사람 반'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 같은 생물이었을까? 아니다.

네브라스카인은 수년간 진화론의 증거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네브라스카인에 관해 발견된 것은 치아 하나가 전부였다. 이 치아 하나로 사람 전체를 만들고 나중에는 그의 아내까지 만들어주었다. 하지만 후에 그들은 그 치아가 돼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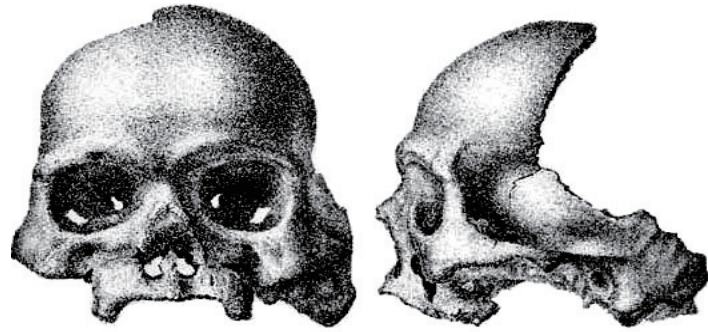
### 네안데르탈인은 관절염 때문에 허리가 굽고 있는 노인

필트다운맨은 1912년에 발견됐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다윈의 이론이 필트다운맨으로 사실로 증명'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필트다운맨은 영국의 필트다운의 자갈 채취장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누군가가 원숭이 턱뼈와 인간 두개골을 가져다가 하악관절을 부러뜨려서 끼워 맞추고 이빨을 갈아 만든 것이었다. 전 인류를 속인 것이

다. 게다가 필트다운맨은 40년간이나 교과서에서 진화론의 증거로 사용되었다. 결국 1953년에 사기로 드러났다.

테네시주 낙스빌의 교과서에 여전히 나오는 네안데르탈인은 이미 수년전에 이것이 중간체일 수 없다고 증명되었다. 1853년 네안데르탈 골짜기에서 석화된 인간 해골을 발견했는데 등이 굽은 이 해골을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이렇게 소개했다. "아마 그가 천천히 진화해서 서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은 이것이 관절염 때문에 서서히 허리가 굽고 있는 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부러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교과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약 300명의 네안데르탈인이 발견되었다. 그들의 두뇌는 우리보다 크고 뼈 구조는 놀랍도록 강하고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서 보통의 네안데르탈인이 보통의 미식축구 선수를 들어 골대 위로 날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네안데르탈인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있었다. 32년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산타 바바라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과 유사한 인골의 발견이다(1923). 이 유골의 연대는 네안데르탈인의 이주시기와 전혀 맞지 않는다. 이 유골들은 현대 인도인에서 유래한 것이 아님도 판명됐다. 이 유골은 지금까지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출처: 한국창조과학회 캡처)

간 치과의사를 했던 친구 잭은 강의를 통해 자신이 실제 유럽의 네안데르탈인의 해골을 연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네안데르탈인은 오래 살았던 완벽한 보통사람이라고 말했다.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900살까지 살았다. 홍수 후에는 수명이 400세로 줄었다. 그 다음에는 200세, 100세. 눈썹 뼈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만약 우리가 300세나 400세까지 산다면 우리의 눈썹 뼈는 벌써 튀어나올 것이다.

호주 원주민들도 눈썹 뼈가 네안

데르탈인처럼 튀어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턱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것이다. 그들은 연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턱을 도구로 사용하는데 씹는 근육이 뼈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눈썹 뼈가 많이 튀어나온 것이다.

네안데르탈인은 그들의 두뇌가 우리보다 더 크다. 인간 이하가 아니라 아주 높은 사람일 뿐이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양의 두개골이 있다. 테네시주의 낙스빌 사람들을 줄 세워놓고 두개골 형태만 조사해도 진화론을 증명할 수 있다. <계속> [GNPNEWS]



## 선교 통신

### “기도의 자리 지키며... 행복한 선교사의 삶 누린다”

제가 설거지 할까요? 청소할까요? 선교사님은 답했다. “됐습니다.” 그냥 가만 있으라는 것이었다. 무엇도 쉬운 일은 없었다. 시집 온 심정으로 67세라는 나이에 선교사로 순종해 L국에 왔다.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십자가 사랑 받은 자의 순종의 걸음일 뿐이었다. 복음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나 자신부터 견고히 세워지는 게 우선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셨다. 늘 해왔던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24·365기도를 혼자 시작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선교사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다. 시간을 정하여 연합기도가 시작됐다. 그리고 또 이미 선교사님께서 해오던 느헤미야52기도정보 책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매주 수요일에 하게 됐다. 이어 화요일도, 금요일도 기도 시작됐다.

한번은 아웃리치팀이 방문해 한 주간 느헤미야52기도를 드렸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 땅의 기도의 집들이 회복되는 일 때문이라는 마음을



▶ L국 이른 새벽부터 공양하는 사람들과 승녀들의 탁발(托鉢) 행렬

주셨다. 곧바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섬기던 교회 사모님과 둘이서 매주 목요일에 저녁기도를 시작했다. 목표는 복음 앞에 한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었다. 1년 후 기도의 사명을 받고 한 사람이 선교단체를 통해 파송 받아 입국했다.

이 땅의 명절 기간에 교회 식구들과 16명이 2박 3일 동안 느헤미야52기도정보 '복음의 영광'편으로 복음을 나누며 기도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한 달에 한 번, 24시간 기도로 이어졌다. 이 기도는 5년이 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20대 청년 선교사들은 4년 동안 새벽시

간을 맡아 기도했다. 평균 15~16명 정도가 참여해 기도의 기쁨을 누렸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어느 곳이든 바퀴 달린 교회처럼 달려가 기도했다. 정해진 것은 매월 1회이지만 어느 때는 2~3회 기도할 때도 있다. 망설일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기도를 쉬지 않도록 이끌어 가셨다.

지금은 연합이라는 단어가 아름답고 자연스러워졌다. 하지만 2~3년 전만해도 연합이라는 말조차도 부끄러운 시간이 있었다. 1~2년 동안 나는 단 한 사람과도 연합할 수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

는 존재임을 비참하게 경험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누가 비웃는다 해도 주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셨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자리, 어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염치 불구하고 주님과 약속한 기도의 자리는 잃었던 십자가 사랑을 얻는 자리였다.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를 알게 하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제는 수도권에서만 아니라 지방이나 이웃나라까지 가서 기도하게 하신다.

9월에 한 주간 M국에 다녀왔다. 그곳에서 70대 노년의 선교사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 선교사님은 10년 전 그곳에 땅을 사 놓고 고아들을 섬기기 위해 호스텔을 건축하기 위해 기도하셨다. 하지만 여러 일들로 상황이 풀리지 않다가 10년 만에 드디어 호스텔을 건축하게 됐다. 네 명의 고아와 가난 때문에 학교도 못가는 아이들 10명을 양육하며 돌보고 계셨다. 하지만 선교사님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쳐계셨다. 그곳에서 선교사님과 함께 60시간 동안 기도했다. 그분은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달려가셨다. 노년의 선교사님이 십자가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넘기는 영광을 보며 이 걸음을 더욱 멈출 수 없게 하셨다.

텅기열에 걸려 꽤치 않은 상태로 누워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 중에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 몸은 지쳤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은 육체를 능히 정복케 했다. 기도에 참여한 사람마다 행복해지는 모습을 볼 때 그 속에 끼여나도 저절로 행복하다. 이렇게 복음과 기도면 충분하며 복음을 누리는 행복한 선교사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완성 되는 그날을 소망한다! 마라나타! [GNPNEWS]

윤안나 선교사

#### \* 선교지 소식을 제보해 주세요.

긴급한 열방의 상황이나 숨겨져 있는 부흥의 소식을 알려주세요. 독자들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10-6326-4641, 070-7417-0408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물에서 건져 주신 주님이 북한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복음통일을 기도하는 **유소망 목사(가정교회)**



©복음기도신문

유소망 목사는 작은 화분을 많이 키우고 있었다. 북한에 있을 때는 꽃을 좋아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집에 있을 시간이 없어서 화분 하나 키울 겨를도 없이 살다가, 지난해 수술 후 요양하는 덕분에 1년 동안 모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꽃을 보며 하나님과 한참 대화했다. ‘하나님, 이 꽃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셨어요? 예쁘네요. 하나님이 피워주시는 아름다움입니까 마음껏 자랑해라.’

이곳에서 천국가기 전에 천국생활을 맛보게 해주셔서 너무 행복하다는 유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 한국에는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정말 우연히 오게 됐어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도 있었어요. 한국은 쉴 새 없이 데모하고 불편한 곳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나 살겠다고 어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세상 살기가 힘들어서 여러 번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두만강에 뛰어들었는데 중국으로 떠내려 오던 나를 누가 구해줘서 살게 됐어요. 살고 나니 기가 막혔죠. 그래서 흑룡강 쪽에 가서 농사나 지으며 북한 아이들을 도와주자 싶어서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돈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야 된다고, 중국은 안전하지 않다고요. 한국에서 브로커를 보내줘서 이 땅에 오게 됐어요.”

## 끊으려던 목숨을 구해줘 살아났다

- 한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기 와서도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내 목적은 죽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예수님도 몰랐어요. 외로워서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니 위로나 받고 했는데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내 목숨을 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자살할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믿음은 여전히 약했어요.”  
- 목사님이 되신걸 보니 믿음이 자라는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어느 날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한 선교단체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련회에 오라더군요.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이어서 선교훈련도 받고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결국 물에서 저를 건져 주신 주님이 그곳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대사로 불러왔다.’고 하셨어요. 그땐 대사가 뭔지도 모르고 웃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한번은 금요철야예배를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이 내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셨어요. 영어로 기도해서 일단 기도를 받았죠. 통역하는 분이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면서 ‘내가 저 사람을 북한 대사로 불러왔다.’고 인사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목사님은 내게 와서 큰절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눈을 감고 있어서 몰랐죠. 그때 제 나이 64세였는데 ‘목사님이 왜 내게 큰절을 하나?’하며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주님에게 받은 마음



▶ 주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순종하는 유소망 목사(©복음기도신문)

이 진짜구나.’ 깨닫게 되면서 그때 제 인생을 주님께 드렸어요.”  
- 주님이 강력하게 불러 주셨군요.  
“이제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 선교단체의 간사로 섬기면서 신학교에 다녔어요. 그때는 하루에 1시간 자면 잘 잔 편이었죠. 그렇게 6년 동안 그 단체에서 살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다 네덜란드에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영어를 모르는데도 갔어요.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 이곳은 탈북민들이 오면 안 될 곳이었어요. 브로커들이 자기들도 정착을

못한 땅에 탈북민들을 오게 한 것이었죠. 탈북민들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 빗더미에 앉아요. 이런 사정도 모르고 이곳에 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 네덜란드 상황을 알렸어요. 한국보다 좋은 곳이 없다고요. 그때 네덜란드 가는 게 중지됐어요.”

## 수련회에서 예수님 만나다

- 다행이네요. 주님이 탈북민들을 지켜 주셨군요.

“2013년도에는 주님이 김포에 탈북민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시는 분이 교회하라고 건물을 내 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탈북민들을 도왔어요. 그러다 그해 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암에 걸렸던 딸이 다 나았다고요. 어떻게 나왔냐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손을 대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사실 네덜란드 가기 전에 딸의 암소식을 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어머니입니다. 낮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종하

면서 살아요.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죠. 교통사고가 나서 다쳤는데도 사람들이 물려오면 자신이 탈북민인 게 들통 나기 때문에 아픈데도 일어나서 도망을 가요. 그 몸으로 또 일을 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를 지켜 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면 누구도 믿을 구석이 없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요. 몇 달씩 공부시켜서 한국에 데려오는데, 한국에 오면 잘 믿지 않아요. 벌어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니 몇 달 후, 몇 년 후에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한참 실망을 했는데 지금은 기뻐요. 빛은 역시 빛이구나 깨닫게 되죠.”

## 한국에 와서 정말 북한을 위해 기도해요

- 중국에는 탈북민들이 많죠? 상황은 어떤가요?

“중국에 오는 북한사람들은 대게 돈을 벌여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돈이라도 쥐여 줘요. 북한에서는 모여 기도도, 예배도 못 드리지만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시죠. 몇 년 후에 한국에 온 사람들을 만나보면 힘들 때마다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다 한국에 오게 되면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게 돼요. 중국에선 기적도 많이 일어나요. 한번은 어떤 분에게 탈북하려던 자기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다고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탈북 경로를 아니까 국경에서 돌아갔다면 언제쯤 도착할지 시간을 계산해서 그분이 오늘 밤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주님께 그렇게 응답해 주시도록 믿고 기도했어요. ‘가던 길을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것과 똑같이 주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모가 말한 대로 그렇게 돌아왔다고요. 사람들은 저를 이모, 엄마, 언니 등으로 불러요. 북한에서 한 사람의 증인만 있으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안 믿을 수 없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 그 이후엔 어떤 걸음을 걸으셨죠?  
“중국에서 나와 주님이 서울에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탈북민을 위한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단 한 명이라도 하

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다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하는 탈북민이 있어 그분에게 넘기고 나는 가정교회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한 명을 섬기고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같은 상황이 됐죠. 그분은 전라도에서 일을 하다가 토요일에는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 무조건 올라와요. 지금은 선교사가 됐어요. 한 명만 주님 앞에 똑바로 세워도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니까요.”  
- 근데 몸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신가요?

“작년 12월에 러시아에 갔다가 위선공과 장출혈이 생겨 쓰러졌어요. 러시아 의사들이 못 살린다고 하는 걸 기도하면서 ‘죽어도 천국이니깐.’하며 6시간 수술을 하고 24시간 만에 깨어났어요. 그때 꿈을 꿴는데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여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죠. 수술 8일 만에 주삿바늘을 꽂은 채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입원했어요. 그때부터 2개월을 절식하고 올해 3월에 퇴원했어요. 한동안은 물 한모금도 못 먹었는데 5월부터는 죽도 먹게 됐죠. 그렇게 회복되는 기간 동안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복음학교도 가게 됐고요. 제가 신학교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복음 앞에 바로 섰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 앞에 바로 서 있었구나 확인하게 됐어요. 계속 훈련을 받고 싶어서 중보기도학교에 가게 됐는데 다시 췌장염이 생겨 지금은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 또 안 좋으셨군요. 근데 아까 자녀분들이 북한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안전하게 지내고 계시나요?

“네, 잘 있었어요. 어느 날 지인이 저에게 가족을 한국에 데리고 오자고 했죠. 그때는 300만 원이면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내가 바라던 일이었죠. 그런데 순간 ‘주님께 기도해야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을 기도해 보기로 했는데 주님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이들은 지금 잘 있다고 해요. 어디에 있던 건 이제 주님께 맡겨요.”

- 너무 감사하네요.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하나님의 꿈 (5)

#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마지막 비전”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환상이 있다. 자기를 사랑하여 자긍하고 교만하며 악독하여 전쟁과 무서운 살인, 탐욕으로 뒤엉킨 세상의 마지막 ‘고통하는 때’ (딤후 3:1~5)에 죄인들로서는 도저히 꿈 꿀 수 없는 마지막 부흥의 역사가 있다.

“만군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만군의 여호와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

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속 8:20~23)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일찍이 역사에 없었던 일이 일어난다. 이 백성, 저 백성이 몰려와 죽이거나 빼앗지 아니하고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고 말한다!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말이 달라서 서로 뜻이 안 통하는 이방 사람 열 명이 다 한 영에 사로잡혀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으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고 들었으니 너희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 역사 마지막 순간에 펼쳐질 아름다운 장면, ‘연합’

마지막 날에 벌여질 위대하고 놀라운 ‘연합’은 정치로도 안 되고, 지

방색으로도 안 되고, 교육으로도 안 되고, 다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다. 서로 원수처럼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약육강식’이라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저주 받은 이 땅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유일하게 허락하신 교회마저 서로 반목(反目)하고 있다. 신학 지식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돈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건물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500년 전 종교개혁을 통해 어렵게 진리를 되찾았는가 싶더니 불과 1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스스로 간신히 지퍼 놓은 개혁의 불길을 스스로 꺼버렸던 역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다.

나조차 나를 사랑하기 힘든 우리로서는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연합’의 꿈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작금의 교회의 상황을 볼 때 더욱 암



일러스트=노주나

담하기도 하지만 주님이 이루실 궁극적 비전이 있다. 역사의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펼쳐질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비전이 바로 이것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 7:9~10)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절대 섞일 수 없다. 공존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이들 모두가 거룩한 옷을 입고 손에 평화를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의와 화평과 희락과 성령의 나라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에브론선교대학교**  
HEBRON UNIVERSITY FOR MISSIONS

“We proclaim Him, admonishing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perfect in Christ”

[hufm.or.kr](http://hufm.or.kr)

## 에브론선교대학교 2020년 신입생 모집

### 모집대상

-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
- 선교적 삶에 대해 부르심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대상자 (단 예외상황일 경우 상담 가능)

### 입학설명회

- 일시  
1차 : 2019년 11월22일(금) 오후 2시  
2차 : 2019년 12월20일(금) 오후2시  
3차 : 2020년 01월09일(목) 오전10시
- 장소 : 에브론선교대학교
- 입학설명회 참가신청 안내 : [hufm@daum.net](mailto:hufm@daum.net)  
전화 : 010-4031-0700

### 입학전형일정

- 1차 : 서류심사(1차 합격자 발표 2019년 2월 1일 예정)
-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일시 2020년 2월 3일~5일(수)  
최종 합격자 발표: 2020년 2월 7일(금)

### 입학식

- 2020년 3월 10일(화)

### 학사 과정에 관하여

- 에브론선교대학교는 복음을 전공한다.
- 본교는 4년제 학제로 운영되며 복음기초과정 2년과 복음전문과정 2년으로 구성된다.
- 복음전문과정 2년은 단과대학과정으로 운영되며 입학할 때 미리 선택하지 않는다.
- 본교에서 인정하는 복음기초과정 2년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는 복음전문과정에 편입할 수 있다.

### 학교 생활에 대하여

- (1) 복음기초과정은 일주일에 4박5일 학교수업과 3박4일 현장수업으로 진행된다.
- (2) 복음기초과정은 매 학기마다 방학을 이용하여 현장 아웃리치를 진행한다.
- (3) 복음전문과정은 각 단과대학에서 결정하여 진행한다.

### 문의 접수처

- 연락처 : (041) 667-1737, 010-4031-0700
- 이메일 : [hufm@haum.net](mailto:hufm@haum.net)
- 주소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에브론선교대학교 (31952)

**에브론선교대학교**  
HEBRON UNIVERSITY FOR MISSIONS

Interview

<5면에 이어>

## 북한 이야기하려면 너무 가슴 아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늘 ‘사람은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된다. 푸른 하늘이 내려다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는 남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남을 섬겨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보니 모두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동네사람들은 우리 어머니를 이상하다고 했어요. 감자를 이웃에게 나눠줄 때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자신은 안 좋은 감자를 먹었거든요. 또 어머니는 가끔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제가 누워서 자라고 하면 ‘안 잔다. 생각한다.’고 하셨죠. 기도를 하신 것이었죠.”

- 북한의 상황을 소개해주세요. “북한 이야기는 잘 안 해요. 가슴만 아프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밥 좀 달라고 해서 밥을 먹고 돌아간 아이가 이를 후에

나가보면 죽어 있어요. 한술씩 벌어먹던 사람들이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여름에는 찻으니 까 시체를 빨리 치우는데 겨울에는 며칠씩 두죠. 저도 1년 동안은 풀만 먹고 살았어요. 풀만 먹으니 눈물이 나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풀에 약성분이 있었는지 아픈 것들이 낫기도 했어요. 그러나 사회에 대한 반항심은 컸어요. ‘앞으로 살아봐야 뻔하다.’ 싶어서 나이 60이 넘었으니 죽자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어요. 지금은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을 만난 게 제 인생에 최대의 행복이에요. 이제 내가 74세인데 주님이 수술을 시켜주셔서 성전 청소도 깨끗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마음대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GNPNEWS]

Y.K.

<뒷 이야기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gnpnews.org](http://gnpnews.org))에서 이어집니다.>

▶ 화초를 키르며 하나님께서 피워주시는 아름다운 복음을 찬양하다. (©복음기도신문)





#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정하게 됐다

선교훈련의 마지막 과정은 아프리카의 모리타니로 떠나는 아웃리치였다. 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은 내가 쌓은 터들이 허물어져야 하는 시간이었다. 또 그래야만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더욱 경험하게 되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건강과 재정, 지혜, 이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주님께 속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결코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내 건강을 내가 신뢰할 수 없는 가장 미약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또 참 목자 되시는 주님을 생명으로 꼭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모든 상황이 내게는 주님 안에 최고의 환경이 되었다. 내가 어떻게 전심의 믿음을 써서 주님과 교제해야 하는지 묻고 들으며,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운동도 하고 리서치도 하고 기도로 준비했다. 때로는 게으름과 익숙함으로 나아갔던 때도 있었으나 날마다 주신 말씀으로 나에게 대하여 부인하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과

공활하심이 나를 돌이켜 주셨다.

드디어 밝게 된 모리타니 땅에서 주님은 내게 주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보여 주셨다. 처음에는 팀의 헬퍼로서 지체들을 마음 다해 섬기지 못하고 피부의 질병 때문에 내게만 집중했다. 그런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영광을 볼 자격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내 모습을 직면할 때조차도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

열방을 위해 릴레이로 기도하는 느헤미야52기도가 시작되는 첫날과 둘째 날 조금 머뭇거렸다. 그러다 주님은 대화를 통해 나를 어떤 전쟁 가운데로 불러 주셨는지 기억나게 해주셨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복음과 함께 사는 자였다. 그런데 사탄이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공격하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 이 사건은 앞으로 맞게 될 믿음의 삶의 태도를 다시 확증해 주시는 시간이기



일러스트=고은선

도 했다. 그 이후, 모든 일정 속에서 주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감탄했다. 내 마음은 지체를 사랑할 수 없는 말라비틀어진 황폐한 땅이었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크신 공활을 입어 사막에 물이 흘러 넘치듯 존재의 변화로 나타났다. 그런 은혜를 일정이 진행되는 순간순간에 알게 하셨다.

현장 선교사님들과 기도하고 교제하며 반드시 속히 올 그 날에 대

한 열망을 갖게 됐다. 선교사님은 사막 띄약별에 메마른 나무 한 그루라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나무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주님께 헌신하여 달려왔지만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아 낙망하여 지친 마음이었던 내게 주님은 이렇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셨다. 나를 지으시고 불러 주신 하나님이 여러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셨다

는 마음을 주셨다. 10년 동안 공을 들였으나 제자 한 사람도 양성하지 못하여 열매 없는 것 같은 선교사님들의 믿음의 걸음도 주께서 이미 받으신 승리의 삶이라고 생각됐다. 다 알 수 없으나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걸음이라면 어디든 하나님 나라이니 참 행복한 자들이 아닌가. 주님이 보이신 영광 잊지 말고 더욱 깨어 주님 오실 길 준비하는 자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기로 다짐했다. 옛 것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미 지나간 믿음의 걸음도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향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GNPNEWS]

이현희

\* 믿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에게는 본지에서 마련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 탈북자들 “기회만 되면 탈북하겠다는 분위기 확산”

이 시대 가장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받는 이웃,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최근 인권단체 나우(NAUH, 대표 지성호)가 자유를 찾아 동남아시아의 제3국에 밀입국한 탈북자 13명을 무사히 구출했다. 자유아시아 방송이 목숨을 건 여정을 현지 밀착 취재한 내용을 소개한다.

### 제3국에 도착해서야 안도의 한숨

동남아시아의 제3국에 무사히 도착한 13명의 탈북자는 인권단체 나우의 도움으로 한 민박집에 도착했다.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탈북자들이 제3국에 무사히 도착해도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고 연락수단이 여의치 않아 인권단체 관계자와 현장에서 만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구출팀도 오직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만 의지한 채 차를 타고 수십 km를 돌아다닌 끝에 기적적으로 만났다. 늦은 밤에 도착한 민박집에서 간단히 몸을 씻고 짐을 정리

한 탈북자들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현관에 벗어놓은 탈북자의 신발은 그간의 고된 여정을 말해주듯 다 닳고 해져 있었다. 일부는 강을 건너자마자 신발을 버리기도 했다. 한밤중에 7개의 산을 넘다 웅덩이에 빠지고 넘어지면서 다리와 무릎 등에 생긴 멍과 상처 등은 탈북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두 명의 탈북 여성은 잘 걷지도 못했다. 두 살배기 아기는 이미 침대 위에서 굶아떨어졌다.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탈북 과정을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도 탈북자들의 얼굴은 매우 밝았다. 이제 안전한 곳에 도착했고, 곧 자유의 땅인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동글게 모여 앉아 그간의 어려웠던 여정을 되돌아보며 뒤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 서로 밥과 음식을 나누며 건강을 염려하는 모습에서 이미 사고고락을 함께했던 이들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 탈북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실시간 소통

북한에서 바로 이곳까지 온 탈북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 민박집에 도착한 이들은 자신이 가진 휴대전화에 무선 인터넷 연결을 요청하고 문자와 동영상 전송을 통해 무사히 제3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먼저 한국에 정착해 있던 가족과 지인에게 곧바로 전했다. 탈북 과정에서도 휴대전화는 실시간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자신의 위치를 구출팀에게 알리는 역할도 했다. 하지만 탈북 과정에서 통신수단은 위치추적의 대상이 된다. 위치가

발각되면 신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휴대전화를 켜고 있을 수는 없다. 최근에도 중국에서 탈북자 몇 명이 붙잡혔는데, 통신수단을 이용하다 적발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 꿈과 자유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

탈북자들은 갈수록 강화하는 단속과 통제, 북한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등을 피해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신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꿈이 좌절된 김진혜(가명) 씨는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싶어 탈북 길에 나섰다. 50대 이춘화 씨(가명)는 부정부패를 견디다 못해 북한을 뛰쳐나왔다.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피하고자 뇌물을 바치는 악순환이 계속되다 보니 차라리 탈북자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남성 박주영 씨(가명)도 오늘도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착취하는 것과 다름없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확실한 탈북 기회를 엿볼 수 있다면 많은 사람이 북한을 떠날 것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GNPNEWS]



▶ 제3국에 무사히 도착한 탈북자들(출처: RFA 캡처)



## 모든 것이 기도에 달려 있다

기도는 참된 종교의 본질이다. 기도는 보이지 않으나 지극히 거룩하신 분과 갖는 교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복의 통로이며, 능력과 생명의 비결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기도를 통해 당신을 붙잡고 당신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도 모두 기도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된 사역을 하기에는 너무 게으르고 부적합한 존재들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준다. 우리는 스스로 속아서 능력은 없으면서 형식만 붙들고 있을 수도 있다. [GNPNEWS]

<그리스도의 기도학교(2015), 앤드류 머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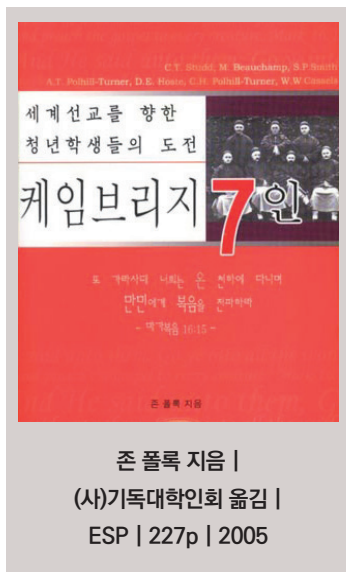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존 폴록 <케임브리지 7인>

## 부흥의 불길의 다음주자는 바로 우리!



최근 듣게 된 영향력 있는 한 기독교 단체 대표의 불륜 소식, 이미 오래된 교회 내의 분열들,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을 보면서 케임브리지 7인의 이야기가 눈에 띄었다.

19세기 영국도 깊은 영적 침체를 보내고 있었다. 어둠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미국의 무디를 통

해 부흥의 불길을 영국으로 퍼트리셨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무디는 삼촌을 도와 구두 수선공으로 지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순회전도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다. 이 일로 영국에서는 부흥의 씨앗들이 자라났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신 선교사 스코필드는 중국에서 중국인들과 씨름하며 살아가던 중에 선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전염병으로 죽어 가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영국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특별히 대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피폐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중국의 영혼을 섬기게 되길 끝까지 기도했다. 또한 19세기 초반 중국의 내지까지 선교하려는 열정으로 가득한 영국인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의 영적 필요와 요구'라는 소책자를 통해 중국 선교를 영국 전역에 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

들 가운데 1885년, 중국으로 파송될 선교사 7인, 이름 하여 '케임브리지 7인'이 준비 중이었다. 아직 청년이었던 그들은 세상 유희와 쾌락 등으로 갈등하며 넘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

케임브리지 7인 중 스탠리 스미스는 13세에 무디의 전도 집회에 참석해 주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을 헌신한다. 비록 예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도, 유희를 이길 힘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으나 결국 대학교 조정 팀의 주장 선수로서의 명성을 뒤로 하고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렸다.

크리켓 선수로 대학 4년을 보내며 국가적으로도 명성을 지녔던 선수 C.T. 스티드는 사경을 헤매는 형을 통해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 부가 아무 소용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는 구속이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나를 사신 것인데 주님의 것인 나를 내가 소유한다면 도

둑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삶을 드린다.

폴힐 터너 아더는 무디 집회에서 거룩한 성직을 안일한 삶의 방편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악취나는 자신의 실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어졌다. 그의 형 세실은 잘나가던 기병부대 장교 자리를 내려놓기까지 하나님은 은혜로 일해 주셨다.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의 집에 방문할 만큼 함께 동역하는 가족을 두었던 보샤는 결국 어머니의 열렬한 환영 속에 선교사가 된다. 조정클럽에서 만났던 카슬은 목사가 되었지만 중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헌신하게 된다. 호스트는 군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기쁨과 헌신으로 선교사가 된다. 그가 선교사가 되려고 허드슨 테일러를 처음 만나던 날은 스코필드가 죽고 난 며칠 뒤였다. 그는 스코필드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유하고 보장된 미래를 뒤로 하고 그들은 1885년

중국으로 떠났고 죽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했다.

중국으로 파송되기 전 나섰던 그들의 고별 설교는 이미 냉랭하게 식은 명목상 영국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에 부흥의 불씨를 던져 학생 자원운동으로 일어났다. 이후 세계 100여 개국의 대학생들이 자원하여 주님께 삶을 드렸다.

그들은 지금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외치는 듯하다.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이 전적으로 그분께 헌신할 때 비로소 당신에게 임하실 것이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십자가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기 부인으로 나아오는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신다. 그리고 주님의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 일어나라! 청년들이여! [GNPNEWS]

김은영 선교사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미국 땅, 마약 중독자들 앞에서 깨닫게 된 나의 실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빌 1:27)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85일의 '온 더 로드 유에스에이(On the Road USA, 미국 대륙을 밟으며)'가 시작됐다. 85일이란 시간이 어떻게 채워질까? 우리 팀을 인도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주님이 내게 주신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완벽했다.

우리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거리에서 혹은 성경캠프에서 설교를 해야 할 때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그 설교의 자리가 부담이었다. 복음 전하러 미국에 갔는데 정작 그 일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나를 마주했다. 너무 괴로웠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했다. 그때 깨닫게 되었다.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잃은 자가 가장 불쌍하고 안타까운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또한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하셨다. 거짓된 입술의 헌신이 아닌 마음으로부터

주를 위한 내 삶을 다시 헌신하게 되었다. 그 이후에 나는 주님을 선포하는 그 자리를 은혜로 누리게 되었다.

두 번째 사역지였던 필라델피아에서 주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아닌 주님의 계획대로 친히 인도하셨다. 만나게 할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고, 살아 있으나 죽은 자로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두 눈으로 보게 하셨다. 그 시간이 내게 85일 동안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바로 캔싱턴 거리에서 마약 중독자들을 만난 것이다. 그곳은 마약을 하는 자들이 모여 사는, 경찰도 그 누구도 그들을 막지 않는 죽음의 거리였다. 길거리마다 쓰러져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즐비했다. 전도지를 들고 거리로 나갔지만 처음엔 너무 무섭고 다가가기 두려웠다. 그러나 서슴없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시는 선교사님을 보며 나도 힘을 얻어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 눈물이 나고 기도가 절로 나왔다. 주님은 죽어가는 영혼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이셨다. 그들은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대놓고 죄를 짓는 처



일러스트=이수진

참한 현장에 있었다. 그 앞에 나는 겉은 멀쩡하고 깔끔하지만 보이지 않게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죄를 짓고 있는 존재였다. 주님은 그들과 내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들과 내가 다른 것 하나, 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진 자라는 것이었다. 내가 무언가 잘 나서, 뭔가 대단해서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을 알려주셨다. 그 은혜가 내게 임하자 하염없이 눈물이 나고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나에게 부어진 하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복

음을 알지 못하는 미국의 영혼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게 되었다. 가장 불가능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기에 불가능한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은혜 받은 자인지, 얼마나 큰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받은 자인지 알게 되자 열방에 죽어가고 복음이 시급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다. 다른 것에 한 눈 팔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오고 가며 만나는 미국 영혼들에게 복음을 마음 다해 전하게 되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마음껏 외치는 자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GNPNEWS] 임담비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 651001-01-343666

예금주 :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19. 11. 8 ~ 11. 27 (가나다 순)

개인 강주선 고은영 권영기 김경선 김다경 김란숙 김명순 김선희 김수미 김애심 김정임 김혜신 박숙자 박승은 안병윤 양애숙 윤경석 이경형 이미영 이은주 이현희 장근혜 전계화 조경미 조명숙 차상복 차인순 차정규 천제원 최민경 최순덕 최정숙 홍태경 황하임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포꿈꾸는교회 김화제일교회 망우제일교회 산돌교회 반석중앙교회 복음기도신학연구소 새순교회 선한목자교회 시은좌교회 시흥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주소망교회 참종양터라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기도원 험스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채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김강호, 인쇄인:이병동(주)아이피디. 2019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을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